

■ 主題論文 ■

# 專門職 教育 및 人事交流問題

레스터 E. 아샤임  
(美國圖書館協會 教育局長)



제가 韓國을 訪問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저에게는 두가지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 專門職 會議에 代表로 參席할 榮光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옛 친지들과의 友情을 새로히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機會를 주신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2日間에 걸쳐 展開된 훌륭한 主題와 討論은 國家 發展에 있어서 圖書館이 지니는 役割에 대해 本人이 다시 定義나 변호를 할 必要를 없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本人은 前에 發言하신 분들이 놓아 주신 훌륭한 基礎 위에 司書職의 教育에 관해서만 이야기 할까 합니다. 이 主題는 文敎部長官의 歡迎辭에서도 言及하였듯이 圖書館의 運營은 藏書나 施設과 同等하게 重要하니 만큼 이 主題는 本會議에 매우 적당하다고 봅니다. 司書를 教育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運營케 하기 위함이며 훌륭한 圖書館 教育은 司書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적절하게 運營하도록 하며 本會議의 主題인 “國家發展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本人이 圖書館 教育을 論하는데 있어서 美國의 例를 드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本人이 美國의 圖書館 教育을 하나의 模範이나 龜鑑으로 삼으려 하여서가 아니라 다만 제가 몇 말씀 드릴 수 있을만큼 잘 알고 있는 圖書館 教育 制度이기 때문입니다. 本人이 생각하기에는 教育의 궁극적인 目的이나 또한 教育者들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 등을 어느 나라고 모두 共通의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 마다 必要와 與件들이 다르므로 어떤 問題에 대한 解決策이나 目的을 達成하는 方法 등은 나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Sharr氏도 이 點에 대해 매우 적절한 發言을 하였습니다. 國家에 따라 圖書館 教育이 다른 理由의 하나는 한 國家의 特殊教育이나 專門의 教育은 그 國家의 一般教育 制度에 合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例로 美國의 一般教育 制度는 概괄적으로 말하여 初級教育課程 8年 中等教育課程 4年 (大學 以前에 12年)과 學士學位를 받는 大學課程 4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16年間은 基礎教育으로 看做되고 있으며 專門的 教育은 이러한 基礎教育이나 또는 大學課程에서의 豫備的 專門教育課程을

基礎로 하여 大學院 課程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美國에서는 다른 專門職 教育과 마찬가지로 司書職 教育도 16年の 基礎教育과 大學課程에서 圖書館學 課程을 履修하였으면 그것 외에도 一般的으로 1年 또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大學院 課程에서 다루어집니다. 美國圖書館協會에서 認定한 專門職 學位는 碩士學位입니다. 美國에는 國家試驗은 없으며 正式으로 認定된 學校의 卒業生은 그 以上の 試驗없이 그 資格을 認定합니다. 다른 專門職學校에서도 基礎教育課程을 履修하지 않은 學生은 入學을 許容하지 않습니다. 이 以外에 司書教師의 教育에 있어서는 洲에 따라 위의 體制와 좀 다른 例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教育의 감독권은 聯邦政府의 所管이 아니라 50個의 洲政府의 管轄下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體制는 美國 學生이 專門職 資格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體制입니다.

美國의 教育體制에 관하여 여러 분들은 그 具體的인 面보다 그 原則을 記憶하시기 바랍니다. 總 教育 年數가 14年, 16年 또는 18年이라는 것이 重要한 것이 아니며 또 國家試驗의 有無가 그렇게 重要한 것도 아닙니다. 特殊한 部分은 그 나라의 傳統과 制度에 合致하여야 합니다. 重要한 것은 그 나라의 地域의 이거나 國家의 인 狀況에 따라 圖書館 教育의 質이 다른 專門職 教育에 比할 수 있어야 한다는 原則인 것입니다. 教育課程에서의 資格과 條件으로 말미암아 美國의 젊은이들에게는 司書職은 그 意義와 將來性 補償에 있어 다른 어떤 學門 分野와도 同等하게 즐겨 選擇하는 職種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바라는 만큼 많은 젊은 이들을 誘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過去 어느 때 보다는 많은 젊은 이를 誘致하고 있으며 그 質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우리가 司書라고 알려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圖書館學校의 教育課程, 組織을 論하는 代身 美國의 圖書館 教育에 영향을 주는 當面한 問題들을 論하기도 합니다. 어떤 問題는 여러 분도 當面한 問題일 것이며 그런 問題는 여러 분이 어떻게 解決하는가도 알고 싶습니다.

圖書館이나 圖書館 教育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提示되는 形態와는 關聯없이 情報 그 自體 일 것입니다. 最近에 와서 特히 政府, 産業, 科學技術 機關에서는 傳來的인 出版方法에 의해 刊行될 時間的 여유가 없는 情報과 또한 傳來的인 方法으로 出版될 수 없는 情報의 重要性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本人의 個人的인 信念은 圖書館은 事實을 提供하여 줄 뿐만 아니라 知識을 擴充시켜 주어야 하며, 知慧를 啓發시켜 주어야 하며, 知慧를 啓發시켜 줄 뿐만 아니라 理解力을 길게 하는데 助力하여야 할 責任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形態의 情報이던 利用者에게 가장 効果的이고 全般的인 情報를 提供하여야 할 時急한 使命外에도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在來的인 모든 使命이 그대로 存續된다는 것입니다. 卽, 情報 提供의 任務는 司書의 責任 任務에 追加되는 것이지 在來的인 司書職의 任務와 別個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美國圖書館學校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圖書館學의 諸般 知識을 情報科學의 테두리 속에 合入 시키고 새로운 技術의 知識을 圖書館 運營에 導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方法이 강구되었습니다.

그 한 方法은 既存하는 圖書館學校와는 別個로 情報科學學校를 設立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情報科學의 原理의 圖書館 適用은 附隨的으로만 이루어 집니다. 다른 또 하나의 方法은 既存하는 圖書館學校에 情報科學科를 두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別個의 學位도 授與되나 몇몇 課程은 圖書館學位 課程과 同一한 것입니다. 세번째 方法은 既存 圖書館學 課程을 그대로 두고 그 곳에 몇몇 情報科學 課程을 追加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方法은 情報科學의 原理가 傳統的인 圖書館學 課目에 關聯이 있으면 編入하고 또 새로운 課目을 新設하여 圖書館學校의 全課程을 再構成하는 것입니다. 이 네번째 方法을 綜合的인 方法이라고 하며, 가장 어려운 方法입니다만 本人이 알기에는 가장 將來性이 있는 解決 方法입니다. 왜냐하면 圖書館인들이 情報科學者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情報科學者들도 圖書館人들로 부터 배울 것이 많은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兩者 모두 남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다시 成就하기 위하여 많은 時間을 허비하였습니다.

現在の 圖書館學校를 거쳐 나가는 來日의 圖書館人들은 情報를 傳達하는 圖書, 定期刊行物 및 其他 印刷物 以外の 여러 가지 情報 傳達 形態에 熟達되어야 할 것입니다. 卽, 圖書館에서는 使用되지 않았든 方法으로 情報를 蓄積하고 檢出하는 方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이 方面에 關한 實驗이 아직도 滿足스럽지 못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韓國의 圖書館教

育에서는 이미 이 問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重要한 發展은 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管理와 行政의 重要性을 크게 認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行政의 原理와 實際를 위한 課目, 非正規 講習會, 研究會, 討論會 등 이미 實務에 從事하는 圖書館人들의 行政的인 能力을 기르기 위한 大學院 課程의 研究와 學習의 機會를 위한 要求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事實은 圖書館長職을 教授나 文學人이 兼職할 것이 아니라 司書職이 맡아야 된다는 美國의 專門職 現狀을 反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圖書館人은 行政家가 될 것도 豫期하여야 하며 또 이를 위하여 準備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情報科學과 새로운 技術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效果的인 行政이라는 두가지가 “씨스텔 分析”에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크게 注目하여야 할 일입니다. “씨스텔 分析”이란 簡單히 말하면 가장 能率的이고 經濟的인 解決 方案을 얻기 위하여 問題 解決을 위한 모든 可能한 方案들을 組織的으로 分析하는 分析 方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包括的인 뜻에서의 씨스텔 分析은 行政에만 有用한 것이 아니라 圖書館學校 行政의 效果的인 方法도 되는 것입니다. 本人은 이 方法이 美國圖書館學校 課程의 解說에 자주 使用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美國 圖書館 教育에 또 하나의 重要한 影響을 주는 것은 聯邦政府의 圖書館 發展을 위한 投資의 현저한 增加입니다. 이것은 美國의 圖書館專門職들이 美國圖書館協會를 통하여 步調를 맞추어 多年間 努力한 結果입니다. 全圖書館人을 代辯할 수 있는 強力하고 團結된 全國的인 圖書館協會의 強力한 힘은 이러한 國家의 認定과 支援을 위한 成功的인 努力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의 結果는 또한 聯邦政府의 援助資金에 의해 擴張된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資格있는 司書의 需要를 크게 增大시켰습니다. 이 司書 需要의 增加는 또한 자격있는 司書를 教育시키는 圖書館教育을 增加시키게 되어 既存 學校를 擴張하거나 또 새로운 學校를 設立하게 하였습니다. 來년에는 資金援助는 減少되었으나 司書의 需要는 계속 될 것입니다.

司書職의 不足은 協同作業과 整理奉仕面의 中央化를 자극시켰습니다. 協同編目, 協同購入, 合同收藏, 聯關參考業務, 圖書館 系列化, 司書의 合同使役 등이 이 問題 解決을 위하여 널리 쓰여지는 方法입니다.

이제 圖書館學校는 새로운 局面에 처할 司書를 訓練시키기 위하여 그 學科課程을 改正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司書가 될 사람들은 變遷하는 組織體內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융통성 있고 開放的이어야 하며 協同作業이 導入하게 될 새로운 作業過程을 받아 드릴 수 있

는 관용과 세롭고 보다 重要한 責任을 지기 위하여 과거에 지니던 責任과 任務를 버릴 수 있는 決斷性과 보다 넓은 規模의 運營과 奉仕를 計劃하고 組織하고 實踐할 能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司書의 不足은 또한 圖書館의 職能과 責任을 再定義하고 現 圖書館 體制를 再組織하여 圖書館에서의 各種 職責을 專任 專門職 以外的 사람들에게도 담당시킬 수 있는 可能性도 檢討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充分한 資格을 가지고 있는 司書로 하여금 中等教育을 받은 사람이라면 能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技術補助員이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爲하여 어떠한 訓練이 제일 適當한가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치 아니합니다. 韓國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圖書館 教育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重要한 變化가 發生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곧 닥아올 變化에 對備하여 우리는 무엇이 좋은 圖書館 訓練 또는 教育計劃을 만드는가 하는 點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美國에서 圖書館學校를 認可할 때의 가장 重要한 基準을 教授陣의 質과 學生의 質 및 教科課程의 質에 둡니다. 勿論 그 學校의 行政組織, 財政問題, 施設 및 備品, 圖書館의 規模, 支援部署, 職員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됩니다만 結局은 훌륭한 資格을 가진 교수진과 精選된 學生과 그들에게 가르치는 效果的인 教科課程에 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重要한 要因은 가장 測定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副次的인 要因들은 量的인 指數로 測定할 수 없습니다. 貧弱한 學校일수록 學生數, 建物の 크기, 備品の 量 등 數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것을 強調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實際的으로 點檢 하여야 할 點은 司書들이 받은 教育으로 말미암아 讀者들이 받는 奉仕의 質量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奉仕의 質이란 또한 測定하기 어려운 것 입니다. 本人은 韓國의 圖書館 教育者들이 우리가 美國에서 發見한 測定方法보다 더 좋은 方法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美國에서는 讀者에의 奉仕 範圍는 매우 넓습니다. 現在 美國에는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날로 增加하고 있으며 이들은 在來的인 圖書館奉仕의 對象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反對되는 方向으로도 奉仕를 擴張하고 있습니다. 即, 教育을 덜 받은 사람, 經濟的으로 궁핍한 사람 또는 其他的 集團으로, 前에는 圖書館 利用者로 看做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奉仕를 擴大하고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어떤 特殊하게 적은 集團에게도 奉仕할 수 있도록 우리의 視野를 좁히기도 하며 또한 司書職이 지나야할 國際性에서 오는 責任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잘 計劃되고 보다 많은 國際的인 人事交流가 더욱 必要한 것입니다.

多年間 우리는 小規模의 國際的인 人事交流를 갖었습니다. 여러분도 홀브라이트 計劃, 美國務省의 國際文化交流 交換計劃 등은 잘 아실줄 믿습니다. 國際開發處(AID)는 外國의 司書들이 美國에서 修學하고 視察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주었으며,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司書를 위한 特別訓練도 言及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私設財團(포오드, 록펠라, 아시아 財團 등) 등에서도 援助를 提供하였습니다.

本人은 아시아 諸國의 司書들이 國際人事交換에서 그들의 役割을 過少 評價하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받고 적은 功獻을 하였다고 합시다만 美國의 司書들은 그렇지 않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습니다. 韓美兩國은 交換에 參與하는데 있어서 그 性質이 勿論 다릅니다. 韓國에 온 美國의 司書들은 一般的으로 技術的이고 專門的인 助言과 援助를 위해 來韓하였습니다. 그러나 美國에 건너간 韓國의 司書들은 學問的인 面에서 功獻하였습니다. 아시아의 司書의 도움없이는 現在 美國에 있는 極東關係藏書는 始作도 擴張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서를 選擇하고 購入하고 分類 編目하고 特別奉仕하는데 韓·中·日에서 간 圖書館人들과 學者들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韓國에서 工夫한 美國人 司書보다는 美國에서 工夫한 한국인 司書가 많은 것은 事實입니다. 그 理由의 하나는 言語입니다. 極히 少數의 美國人만이 韓國語를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나 많은 韓國 學生이 英語를 解得합니다. 또 하나의 理由는 韓國에는 아직 司書를 爲한 高級課程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工夫를 하려면 外國에 가야하는 데 美國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美國의 司書들이 韓國關係 藏書를 發展시키면 그들은 韓國에서만 얻을 수 있는 教育과 經驗이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美國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일하고 배우고 본 경험과 지식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人事交流가 必要할 것이며 本人은 이러한 人事交流가 外部로 부터의 援助에 의지하지 않고 韓美兩國 圖書館끼리 相互間의 惠澤을 爲하여 自體的으로 解決하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美國의 司書들이 韓國에 招待되어 圖書館職이 當面한 問題에 關하여 이야기 한다는 이 事實은 여러분이 本人으로 하여금 圖書館職으로서의 하나의 世界라는 本人의 信念과 또한 우리는 國境을 超越하여 서로 배울수 있다는 可能性에 對한 信念에 同意하신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本人은 國家的인 것에서 國際的인 것으로 圖書館職의 展望을 넓히려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